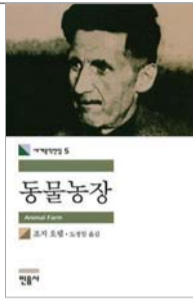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잠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12월의 책 조지 오웰 '동물농장'



존재하는 것들은 대개 스스로 무너진다.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나 파산하는 일이나 그런 망조들은 자세히 따져보면 대부분 자초한 결과다. 누구도 자신 아닌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어렵다. 전쟁에서 지는 일이나 식민지가 되는 일이나 다 자신이 먼저 무너지면서 낸 길을 따라 상대의 악마성이 기여한 것이다.

동물들이 어떻게 인간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었겠는가. 주위의 어떤 농장들에서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존스씨의 메이너 농장은 예외였다. 이미 존스씨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지 오웰은 무너진 존스씨의 모습을 일러 제1차 세계 대전 때 배치하였을 것이다. "과거의 존스씨는 비록 모진 주인이기는 했어도 유능한 농사꾼이었는데, "무슨 소승을 냈다가 지는 바람에 돈을 날리고 잔뜩 울적해져서 몸 생각은 않고 매일 술타령이었다." 그의 삶은 "갑질자 걸음"처럼 비틀거렸고, "좌우로 크게 출렁거렸다."

존스씨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가면서 "미리 짜둔 각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존스씨는 어느 날 갑자기 타도되고, "메이너 농장"은 '동물농장'으로 바뀌었다. 인간 존스씨를 축출하고 해방감에 젖은 동물들은 "처소로 돌아가 잡자리에 들었다." 혁명의 성공이 준 소득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잠"일 것이다.

혁명의 칼자루는 돼지들이 잡았다. 이유는 단 하나,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읽기와 쓰기에서 성장한 힘이 지배력의 근원이다. 읽기와 쓰기의 발에서 자라지 못하면 누구나 무지해진다. 부처에게 가는 길도 기본은 경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독재자는 읽고 써 놓은 것에 제 맘대로 손을 댈다. 무지하면 대중들은 독재자가 읽기와 쓰기에 아무렇게나 손을 대도 괜찮다 한다. 자유를 뺏어가는 수돼지 독재자에게도 대중들은 "나폴레옹 동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는 맹목적 "충성과 복종"을 바친다.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하면 우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에 약한 탓으로 생각을 포기한 채 사는 무지한 대중은 쉽게 조종된다. 독재자 앞에는 언제나 '무지를 조정하는 전문가'들이 대놓고 활동한다. 어용 지식인과 어용 예술인들이다. 동물농장에서는 스킵러와 미니무스가 그 역할을 했다. 어떤 자들은 당당하게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기까지 한다. 독재자의 입이 되는 시인도 있다. 어용 지식인들의 전문가적 권위와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언어 구사력은 대중들이 그들에 의해 조종되면서도 자신이 천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맹목적 추종은 더 공고해진다.

읽기와 쓰기는 말로 재현된다. 정치의 말이다. 말의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대개 다 독재

자들이다. 그들은 전체주의적 독재를 거짓말로 시작한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대개는 독재자다. 인간이라면 말을 어그러뜨리고 나서는 반드시 염치와 수치심을 느낀다. 염치가 있고 수치심을 안다면 혁명 정신을 망가뜨려 독재자가 되지는 않는다. 무지한 대중들은 독재자가 거짓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는 맹목적 복종에다 자기 영혼을 이미 헌납했기 때문이다. 무지가 독재의 토양이다. 무지는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도 무지하면 전체주의 독재를 자초한다.

늘은 수돼지 혁명가 메이저는 "굶주림과 회초리에서 벗어난 동물들의 사회,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간에 맞서 싸우는 데엔 우리 동물들이 결코

함석헌 선생은 혁명이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혁명이 자신이 혁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니체의 한 마디도 떠오른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혁명의 깃발을 든 자 메이저는 혁명이 완성되려면 동물들의 기본 정신과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러나 메이저를 계승한다는 수돼지들 가운데 그의 말에 담긴 정신을 계승한 돼지는 없었다.

독재자들은 대개 앞선 영웅들로부터 정신은 빼고 이미지만 끌어와서 임의로 소비하다가 결국 특권과 권력 놀이에 빠지는 완장으로 전락한다. 읽기와 쓰기의 기능적인 힘으로 권력만 잡았지, 염치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 성숙을 단련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리고 권력놀이에 빠지는 일 이상은 할 줄 모른다. 깃발을 찢어 완장을 만드는 일, 그것이 전부이다.



광남구 작 '동물농장'

반성 능력이 없고 착하기만 하면 복서처럼 된다. 독재자가 야기한 비효율도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며, 독재자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지만, 이 다짐으로 권력자 돼지들은 더 특권화 될 뿐이다. 우리가 충직한 말인 복서의 말로 보지 않았는가. 복서는 나폴레옹만을 따르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모든 동물들이 평등해진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말 도살업자에게 넘겨져 집권층들의 위스키 한 상자도 돌아와 소비될 뿐이다. 위스키 한 상자도 소비된 복서는 모든 '빠'와 '홍위병'들의 말로처럼 독재의 소모품일 뿐이지만, 무지라는 환각제를 맞은 상태라 언제나 당당하고 헌신적이었다.

독재자들에게도 튼튼하게 쌓은 전체주의적 독에 난 조그만 구멍 같은 것이 있다. 호주머니를 훑고 나오려는 송곳같은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라면 품고 있을 것이 분명한 생명의 부식물이다. 아무리 거센 혁명의 기운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전체주의가 영속되지 못하고, 누군가는 깃발이 완장으로 전락한 혁명의 남루한 대오에서 용기를 내어 이탈한다. 그것은 자유다. 자유는 개성이 다.

반란을 준비하며 대오를 갖춰가던 때에 그 전체 흐름에서 돌부리처럼 튀어나오는 질문을 하는 동물

이 있었으니, "제일 우둔한" "흰 말 몰리였다." 반란 지도자 스노볼에게 몰리는 "반란 이후에도 설량이 있을"지를 묻는다. 스노볼은 단호하게 "아뇨"라고 대답한다. 스노볼은 또 말한다. "당신한테 꼭 설량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소? 귀리와 건조는 당신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될 거요." "우둔한" 몰리는 또 묻는다. "그때 가서도 내가 같기에 땀을 내고 다닐 수 있을까요?" 스노볼은 몰리를 비롯하며 땀은 노예의 표시라고 일축하며 매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귀리나 건조와 달리 땀은 생존을 돕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생존 너머에 있는 것이다. 생존 너머의 것은 생존을 생존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살. 삶의 진실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너머의 개성적인 환상을 쫓으면서 커진다. 각자의 삶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적 독재자들은 언제나 이 생존 이상의 것들을 제거하려 한다. 동물 농장에서든 누구나 평등하게 산다는 이념을 집행하려면 생존 이상의 것들은 모두 제거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만 삶을 채우게 해야 할 것이다. 몰리를 몰리에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다 먹는 건조나 귀리가 아니다. 필요 없다는 땀이 오하러 몰리를 몰리에게 해준다.

모든 삶은 생존 이상을 향해 건너가려는 몸부림이다. 자기를 제한하며 멈추게 하는 울타리를 넘으려는 꿈은 모든 생명체들의 당연한 생명활동이다. 언제부터인가 몰리는 한참이나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곤 했다. 혁명의 지도자들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아무리 세차게 금지하더라도 생명체는 언제나 울타리 너머를 포기하지 못한다.

몰리의 '울타리 너머'는 설량이고 땀이었다. 몰리는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간교한 지혜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실한 자신만의 고유한 활동성을 '우둔함' 속에 묻어둔 말이었다. 몰리의 "짚단 밑에는 각설량 땀머리들과 형형색색의 땀기다발들이 여러 개 숨겨져 있었다." 혁명의 질서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몰리는 혁명의 이념이 들어서야 할 자리를 생명의 불꽃으로 채웠고, 마침내 혁명의 대오를 이탈해 "사라졌다." 몰리는 마을로 내려가 "앞머리에 분홍색 땀기를 달고" 술집 주인같이 생긴 남

자의 마차를 끄는 삶을 시작했다.

혁명 주도세력이 볼 때는 다시 인간에 종속되는 노예적 삶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몰리는 "씩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혁명의 이념에 종속시키지 않고, 땀기라고 하는 자신만의 욕망과 개성에 종속시킴으로써 몰리는 자유를 찾았다. 자신이 자신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혁명에서 태어난 모든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몰리에게 좀 더 진실한 관심을 보인다면,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독재자로 전락하지 않을 길이 보일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혁명이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혁명가 자신이 혁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니체의 한 마디도 떠오른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존스씨의 독재를 타도하고 모두가 평등한 동물들의 이상사회를 세우려고 했으나, 읽기와 쓰기에 거리낌 없이 손을 대는 정도의 부실한 내면으로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만의 특권을 깨부수려는 반란이었으나 결국은 자신들이 특권층이 되어간다. 동물들만의 평등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정한 헌법과도 같은 일곱 계명에도 손을 댈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로 바뀐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계명은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로 바뀐다. 권력자 돼지들을 특권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곱 계명 가운데 제대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인간들의 특권을 타파하자던 돼지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특권을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사실 각성 없는 혁명가들이 일으킨 대부분의 혁명이 다 이렇게 되기는 하다.

말(言)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서는 염치와 수치심도 따라서 없어진다. 염치가 없어야 특권도 만들 수 있다. 돼지들이 몰리의 땀기를 노예의 상징이라며 금지하더니 "모든 돼지는 등급에 상관없이 일일 일에 녹색 땀기를 꼬리에 매달 특권을 갖는다는 규칙"까지 만드는 지경이 된다.

어용 지식인 스킵러는 혁명 초기에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다"는 구호를 그렇게도 강하게 외치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과 싸웠지만 결국은 자신도 인간을 닮으려 애쓴다. 제 삼자가 보면,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겠지만 이제는 인간화가 바로 특권이다. "돼지 하나가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다. 스킵러였다."

"동물 농장"은 다시 '메이너 농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마지막에는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한 잠"은 반란을 성공시킨 그 날 한 번 뿐이었다. 그들 모두의 내면은 사실 지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것이다. 튼튼한 내면은 "우둔한" 몰리에게만 있었다.

※ 최진석 교수와 개그맨 고명환의 '동물농장' 복도 크는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